



- 사역국팀장 한마디
- 추수감사절 행사
- 교육부 / 교구 소식
- 간증 / 칼럼

추수감사주일 예배



온 세대가 함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지난 11월 15일(주일)은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임마누엘 성가대는 "추수감사찬송"으로, 마하나임 성가대는 "위대 하신 여호와"를 통해 추수의 기쁨을 찬양했다. 성가대와 수화팀이 하나가 되어 "은혜 아니면" 찬양을 목소리와 수화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로부터 자기 의사표현은 제대로 할까 싶은 어린아이까지 어우르는 수화 찬양팀은 "은혜 아니면" 찬양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수화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각양 각색의 과일들로 장식된 테이블도 아름다웠지만 고사리 같은 어린 이들의 손과 지나온 세월이 느껴지는 어르신들의 손이 하나가 되어 찬양을 드린 것은 더 큰 울림을 주기에 부족함 없이 아름다웠다.

특별 감사로 말씀을 전해주시신 괴종진 목사는 지난 1968년 남서울 중앙교회를 개척하고 40년간 담임목사로 시무였다고 지난 2006년 원로목사로 추대된 바 있으며 현 예정 해외합동총회 총회장이기도 하다. "감사의 제사와 축복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의 당연한 감사의 생활을 신앙의 보석으로 비유하시며 강조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외로움이나 쓸쓸함, 고독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거둬내는 것이 마땅하며, 매 순간 긍정의 말과 생각으로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지워내자고 결심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5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 사역국팀장 세미나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리더의 모습을 다짐

주안에교회 2016년 사역국장 및 팀장 세미나가 11월 14일(토)은 벨리채플에서, 21일(토)은 세리토스 비전채플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9:00AM~12:00PM까지 진행된 세미나는 최혁, 이현욱, 박현동 목사님이 각각 주제를 달리하여 말씀을 전해주었다.

첫 시간은 이현욱 목사님이 '리더를 세우는 리더'라는 주제로 인도하였다. 동역하는 리더,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리더, 제자와 리더에 대해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을 섬겼

던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을 것과 모든 리더는 제자이어야 하며 리더는 성숙한 제자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 시간은 박현동 목사님의 순서였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었다. 가치기준의 변화-부르심, 삶의 변화-합당한 삶, 관계의 변화-사랑으로 하나님됨의 내용으로 인도했는데, 섬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는가'이다. '자리는 책

임을 요구한다. 소명과 사명을 자각할 것'을 강조했다.

셋째 시간은 최혁 목사님의 순서로 '사역현장에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질서를 따라 사역하라, 예산은 교회의 방향에 맞추어 계획하라, 리더의 개인적 주의사항 등 리더로서 사역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다.

사역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사역은 사명으로 가야할 자리임을 리더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겸손과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교회의 하나님됨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리더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매우 소중한 귀한 세미나였다. 사역국 리더들의 새해 각오와 함께 우리 주안에교회가 힘있게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부흥과 성장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한 해 되기를 기대한다.

| 김경일 기자 |



주님이 맡기신 직분, 주어진 위치에서

■ 제직훈련

주안에교회 제직훈련이 벨리채플에서 10월 23일과 30일, 세리토스채플에서 22일과 29일, 같은 내용으로 두 주간을 걸쳐 있었다. '제직으로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함께 동역하여 나가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현욱, 박현동 목사님이 세미나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었다. 이현욱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기동 같은 제직'이었고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9-10절이었다. 말씀의 내용은 '기동은 크고 반듯하여야 한다. 세움 받은 위치에서 잘 감당하라. 넓은 도량을 가져라. 흔들

림 없이 굳건히 서고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셨다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라. 직분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책임을 다하고 은혜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이다'였다. 우리는 주님이 피 값으로 세우시고 지키신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하여는 건강하고 튼튼한 기동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도 건강하고 튼튼한 제직이 필요하다. 박현동 목사님은 10월 29, 30일 설교에서 종의 모습으로 제직의 사명을 담당하자는 말씀을 전했다. | 공태용 기자 |



한인음악가협회 연합 찬양제 "주의 빛 환하게"

■ 성가대



11월 9일 오후 6시 30분에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가 주관한 코랄 페스티벌, 찬양제가 나성 영락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주안에교회는 창립 후 처음으로 참가한 찬양제이어서 심도 높은 연습을 한 뒤에 성가제에 참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10개 팀이 참여하였고 주안에교회 임마누엘 성가대는 3번째로 찬양하였으며, 정도영 장로님의 헌신을 다한 지휘로 '주가 은혜로 이끄시리, 주의 빛을 비추소서' 두 곡을 찬양

으로 올려드렸다. 마지막 순서는 참가팀 전체가 연합으로 헌팅의 '할렐루야'로 마쳤다. 시작기도는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목사님께서 했고, CHTV 사장인 정요한 목사님의 축도로 참가제는 막을 내렸다.

조금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여러 교회에서 모여 각자의 찬양 기량을 뽐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귀한 찬양의 밤이었다.

| 공태용 기자 |

■ 카니발&컨퍼런스 데이

할로윈 대신 예배와 축제, 알찬 자녀양육 세미나

지난 10월 31일 토요일(11:00AM-5:00PM) 교육부 주최 카니발과 세미나가 있었다.

단순히 아이들이 밤에(trick or treat)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에서 대체용으로 하는 행사보다는 부모, 자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고 결국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세워지는 게 이번 행사의 목적이었다. 그 전 주부터 교육부에서는 전도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할로윈의 역사와 기원,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거나 동참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할로윈 데이로 알려진 이 날 토요일, 교회로 나온 아이들은 커스툼 대신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 아이들의 예배가 끝난 후엔 권사님들의 수고와 손맛으로 준



비된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카니발은 아이들의 열정적인 관심과 청년부, Youth 아이들의 자원봉사로 여러 가지 게임들이 펠로우쉽 홀 곳곳에 마련돼 있었다. 무엇보다도 홀 중앙에 놓여진 커다란 Bouncing House는 역시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아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다.

아이들이 예배와 카니발을 하는 같은 시각, 본당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1부 세미나가 최혁 목사님을 강사로 자녀교육의 본질 "자존감(자긍심)"에 대해서 주일 설교말씀과는 또 다른 목사님의 주옥같은 말씀에 지금 자녀를 가진 부모와 앞으로 예비 부모가 될 청년까지 깊이 깨닫고 공감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점심이 끝나고 시작된 2부 세미나에서는 정희성 목사님을 강사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주제로 열렸다. 우리 가정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족 간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역시 가정상담, 치유 전문가답게 시원시원한 화술로 짧지 않은 시간을 술-술 지루하지 않게 지나가게 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서 부모 된 자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의 최선의 방법은 '기도'요, 최고의 지혜는 역시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세미나 강사로 나오신 두 분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는 시간이었다. | 박희정 기자 |



■ 주안에라이프

3개월간 배움의 기쁨... 100여명 실력 뽐내

2015년 하반기 주안에 라이프가 13주 만인 지난 11월 18일 아름다운 종강식이 있었다. 주안에 라이프 2015 하반기 학기는 지난 8월 주안에교회 성도와 인근 지역에서 온 타교인 총 100명이 등록하고 수강을 했다.

종강식은 주안에 라이프 국장 김재주 집사의 인사말과 박현동 목사의 기도로 시작하여, 박경숙 집사의 윌트 넘치는 사회로 시종 웃음소리와 박수가 떠나지 않았다.

지난 13주 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자랑하는 시간에는 임중구 집사의 영어반과 컴퓨터반의 자랑에 이어, 멋진 의상에 중절모를 쓰고 "즐거운 나의 집"과 "사랑은"을 연주한 김중환 장로님의 색소폰반, 학생 한 명 한 명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한 이정희 전도사의



키보드반, 이재조 전도사의 성경교실, "좋은 신 하나님", "나의 살던 고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연주한 황영옥 권사의 오토하프반, 박현동 목사와 박경숙 집사의 스마트폰, 고운 소리로 "You raise me up"과 "만남"을 부르고 "Over the rainbow",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를 연주한 오병순 집사의 노래교실과 기타교실, 학생의 수를 10에서 20명으로 키우신 바둑 선생님 피터 천 목사, 하모니카 실력을 뽐내고 경쾌한 음악에 밝은 상의와 검은 하의의 차림으로 경쾌한 몸놀림을 "트위스트, 좋아좋아, 탕고, 차차차, 라인댄스, 해피댄스, 건강댄스"의 차례로 소개한 이

영식 장로의 건강댄스반, 서정아 전도사의 스트레칭반, 확실한 월동 준비 코트 3점, 조끼와 스카프로 패션쇼를 한 이용화, 이양자 권사의 뜨개질반, 안병헌 집사의 배드민턴반과 마지막으로 소개된 퍼포먼스 등, 잠시도 관중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주안에 라이프 학생들을 위해 항상 직접 손으로 요리하여 최고의 집밥을 준비한다고 소문난 주안에 라이프 주방 crew 13명은 종강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130명의 아침식사를 끝내고 점심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연령과 직분의 차이를 뛰어 넘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주안에 라이프 2015 하반기 학기는 주안에교회 성도와 타교인들이 한 마음을 이룬 귀한 만남을 뒤로하고 2016년 3월 봄학기의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 박창신 기자 |



■ 코람데오 추수감사절 행사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차린 "밥상을 부탁해"

추수감사절 아침 10시에 벨리채플 친교실에서는 한어청년부 주최로 유학생, 학생, 청년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나누는 "밥상을 부탁해" 행사가 있었다.

코람데오 한어청년부는 매년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날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감사하는 모임을 가졌으나 이번 해에는 청년부 뿐만 아닌 커뮤니티로 초대 손님들을 확장하여 귀한 시간을 나누었다.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한 계기는 전부터 권사 몇분이 인근에 있는 청년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복음을 나누는 행사를 꿈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코람데오 한어청년부가 주축이 되어 홍보와 섭의를 하였고 이성우 전도사와 양국민 전도사가 협력하여 사역하였다.

허제니스 집사, 조이메기 집사, 김명자 집사, 한유리 사모, 민에스터 집사 등 다섯분은 청년들을 위하여 사랑이 가득 담긴 반찬과 요리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구용순 권사는 맛있는 김치를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가져왔다.

정성스럽게, 정갈하게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같은 사랑이 넘치는 식탁을 보고 새삼 주안에 교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에는 신나는 레크리에이션과 더불어 여러 순서를 함께 가졌다.

이 아름다운 사역에 초대된 김희정 자매는 "추수감사절 발런티어로 봉사하러 왔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귀한 밥상 이벤트에 오게 되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해주셔서 놀랐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행사에 참여하겠습니다", 심효은 자매는 "교회는 여러번 참석하였는데 이벤트는 처음이었고요. 담임목사님의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교회와는 달리 따뜻하고, 가족과 같은 느낌, 서로가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음식하시는 분들의 고마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라고 하였다.

밥상을 기획하고 헌신한 이성우 전도사는 "학교와 인근 대학로를 방문한 결과 한글이 편한 학생들보다 영어권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이 계기를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community를 생각하고 이웃을 향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어 감사하고, 첫 회이지만 앞으로 더 그 마음을 키워가고자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한어청년부의 아름답고 뜻깊은 "밥상을 부탁해"는 사역자와 청년부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 공태용 기자 |

<추수감사주일 예배 1편서 계속> 주신 말씀대로 '여물통에 머리를 물고 먹이를 먹으며 그를 준 주인조차 관심 없는 돼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물 한 모금을 마시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병아리 같은 사람이 되자' 라고 다짐해보는 추수감사 주일이였다. 말씀을 들으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는 귀천의 내용이 생각났다. 누군가가 간절히 바랐던 내일이었던, 내게 하

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 그 하루를 때 순간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다가 후회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 우리들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겠다.

또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한 것은 교회 곳곳을 장식한 "THANK YOU CARD" 였다. 성도 한분 한분의 THANK YOU CARD 는 새삼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부족한 글재주로는 다 표

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주안에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마음은 무언가에 쫓기듯 살던 일상을 떠나 우리를 천국에 다다르게 했다.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 써내려간 글귀 들에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부족함으로 인해 알게 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환난을 통해 더욱 굳건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감사까지 감사의 제목은 끝이 없어 보인다.

■ 2016 사역국팀장 각오

직분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 "하나님께 영광"



재정국(국장 김경일 장로)

하나님의 성물이 잘 집계되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국을 섬기는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정담당의 소임에 철저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함께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장과 부흥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팀(국장 윤영섭 집사)

법무팀은 실상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필요치 않은 국이나 이제는 교회도 모든 일을 합법하고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교회의 방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최선을 향해 판단하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마하나임 성가대(총무 윤영섭 집사)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성가대원들이 하나가되어 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단결과 화목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문서국(국장 이광영 집사)

귀한 사역국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해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주안예교회가 널리 알려지도록 열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어청년부(부장 민에스터 집사)

코람데오 화이팅!! 그간의 뿌려진 여러 분들의 헌신과 섬김의 씨앗이 2016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더욱 힘쓰는 본질에 충실한 코람데오가 되겠습니다.



백리 미디어국(국장 김경배 집사)

"광야의 외침!" 그 맑은 소리와 뚜렷한 영상화면 연출을 위해 헌신하는 교우님들과 간사님들을 섬기며, 더 귀한 깨달음을 배우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귀한 헌신자님들을 2016년 한 해 더 섬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백리 새가족국(국장 홍영표 집사)

지난해 주님이 쓰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를 부르셨을 때 당황스럽던 내 모습을 기억합니다. 기도 가운데 온전치 못한 나를 온전케하시고자 한다는 말씀이 들려 순종하기로 하고 달려온 1년 비록 열매는 생각만큼 맺어지지 않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저를 보며 1년의 기회를 더 주시며 온전한 자가 되고자 더욱 더 노력하기로 작정해봅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섬김을 하기 위해 스스로 갖춰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기도로 구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어진 1년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섬김으로 채워나가야겠다 결단합니다.



백리 사진국(국장 안동윤 집사)

2016년 우리 교회의 역사기록에 충실히 임하도록 모든 사역국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국(국장 오성태 집사)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팀장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주시길 믿습니다. 2016년도는 서로 협력하여 동역하며 사랑으로 섬김이 있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성가대(국장 장기연 장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6년이 다가옵니다. 더욱더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 성가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안에라이프(팀장 김현숙 집사)

내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항상 건강하시게 영광과 정성과 사랑을 듬뿍 담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백리 봉사국(국장 김복남 집사)

겸손, 사랑과 운유로 주안예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안에교회 사역국 Ministry InChrist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롬 12:4-5]



백리 교육부(국장 공태용 집사, 부장 윤세희&전혜숙&이석원 집사, 총무 김혜원&알렉스함&임종구 집사)

2016년 한 해 함께 섬기고 싶은 사역국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뛰고 달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백리 경조구제국(국장 이현보 집사)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분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사역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성가대(국장 이영화 권사)

2016년에도 주안에서 모든 대원들이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기도합니다.



백리 건물시설관리국(국장 최형선 집사)

먼저 부족한 저에게 건물시설관리국 국장의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드리며 마음으로 주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데 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마음으로 일해 보려합니다. 사역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내 생각과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라면 어찌하셨을까를 먼저 헤아려보는 마음이 앞서기를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정직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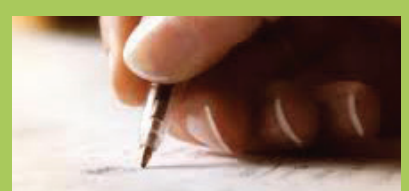
“주안에” 2015년 12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공태용, 김경일, 김현철, 라형철, 박창신, 박희정, 서미숙, 서세건, 이하나,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안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 2016 사역국팀장 각오

협력과 팀워크 통해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기도 외에는 감당해 나아갈 길이 없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세상을 향해 큰 영향력을 미칠 우리 한인 2세들의 모습을 꿈꾸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리토스 기도국(국장 박만규 집사)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오기를 원합니다.



세리토스 주차국(국장 안계성 집사)
세리토스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한 주차를 돕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차국 팀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국에서 함께 봉사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세리토스 기도국(팀장 권상복 집사)
2016년 기도국에서 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1)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 주의 생명이 우리의 의식분 아니라 우리의 의식보다 더 깊은 곳까지 모든 곳에 두루 영향을 주며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24시간을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밸리 의료국(국장 이복희 권사)
주안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리토스 교육국(국장 박은애 장로)
교사와 전도사와 사역을 담당할 모든 이들이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의 마음으로 삶에 사랑을 보여주며 말씀과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사역국이 되길 바랍니다.



세리토스 건물시설관리국(국장 이영진 집사)
성도님들이 곧 이사하게 될 플러튼 채플에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리토스 전도국(국장 황승성 집사)
올해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진 "가슴앓이"의 작은 씨앗이 싹을 피워 열매 맺는 귀중한 2016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리토스 예배국(국장 김종성 집사)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2016년에는 예배국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미약하지만 열심으로 팀장 및 팀원들과 합심하여, 모든 성도들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리토스 봉사국 (팀장 이계순 권사)
안녕하세요. 세리토스 2016년도 봉사국 팀장 이계순 권사입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헌신하며, 겸손과 온유, 오래참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봉사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리토스 미디어국(국장 장경출 집사)
2016 한해는 성령안에서 미디어국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리토스 예배국(팀장 김사라 권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는 귀한 사역국입니다. 1) 하나님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그 길을 여는 섬김의 마음으로 2)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가장 편안하고 기쁜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3)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겸손의 옷을 입고 목양이 흐르는 예배가 되도록



세리토스 새가족국(국장 김옥희 집사)
교회에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안내하여 잘 정착하도록 돕겠습니다. 봉사자들과 함께 사랑과 정성으로 열심히 섬겨서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학교(교장 박경숙 집사)
지금 전세기는 한류열풍으로 많은 나라에서 한국학교가 세워지며 어느 나라에서는 한글로 그 나라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안에 한국학교에서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인 2세들을 꿈꾸며 그들에게 우리 조상의 국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국학교 교장의 경험이 있었던 저는 이번에 주안에 한국학교 국장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사실은 큰 부담감과 함께 감당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헌신으로 보답하고자 "순종" 앞에 섭니다.



12/3(목) 공동의회(세리토스채플)

12/4(금) 공동의회(밸리채플)

12/6(주일) 구역모임

12/8(화) 리더뱅크

12/20(주일) 성탄감사주일

12/25(금) Christmas Outreach

12/28(월)-1/2(토) 신년특별 새벽집회

[1/1(금) 자녀축복기도(세리토스채플), 1/2(토) 자녀축복기도(밸리채플)]

■ 8교구(벨리채플)



서로를 높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정도영 장로와 정혜옥 권사가 교구장으로 이끄는 8교구는 2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역장으로 홍영표 집사와 김경배 집사가 섬기고 있다. 주안예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한 정도영 교구장은 사랑으로 교구를 섬겨 두 구역장과 구역원들에게 넘치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두 구역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경 지식이 풍부하시고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장로님께 많은 배움을 얻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위한 공부시간이 너무 귀하고 즐거워 헤어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며 행복해 한다.

8교구는 2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구역은 구역장 홍영표 안수집사와 홍영주 집사가 섬기며 등록된 가정은 8가정 15성도로 김영철 집사, 김은옥A 권사, 김홍진 집사, 김순옥 집사, 박성진 집사, 박미자 권사, 신용찬 집사, 신은희 집사, 장정보 권사, 정상순 사모, 최혜경 집사, 황우영 집사, 황영옥 권사 가정이며, 현재 4가정이 적극적으로 구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노스리지와 포토랜치이고 연령 분포는 50대가 다수로 대체로 젊은 편이다.

기도 제목은 현재 개인 사정으로 구역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나머지 4가정과 함께 그 것처럼 즐겁게 사랑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홍영표, 영주 집사와 구역원들은 여러명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겠다는 의지와 믿음이 앞으로 큰 전도의 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2구역은 김경배 안수집사가 섬기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포토랜치와 노스힐로 강영근 집사, 강영순 권사, 김석원 장로, 김광숙 권사, 박정순 B 집사, 안정순 집사, 유진희 권사, 최인자 권사, 최창신 사모, 최성혜 집사로 구성되었다. 특별히 삶의 연륜이 높은 구역 가족이 많은 2구역은 믿음의 형제자매로써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몸을 사리지 않는다.

구역장 김경배 집사는 그 분들의 삶의 연륜을 배우며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감사한다. 태신자 상황은 점점 품는 태신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특별히 유진희 권사의 기도와 활발한 활동으로 새가족의 수가 늘었고 태신자를 위한 기도 제목 또한 늘어가고 있다.

교구장인 정도영 장로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구역장님들 때문에 교구와 구역관리가 어렵지 않고 즐겁습니다” 라며 감사한다. 구역예배는 매달 첫 주일에 교구합동으로 드리며 공과 공부는 두 구역장들이 격월로 주관한다. 특별히 8교구는 새가족의 적응도가 높아 어려움을 겪던 성도들도 8교구로 오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례도 많다.

앞으로의 희망은 주안예교회가 나아가는 목표대로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교구가 되는 것이다.

| 박창신 기자 |

■ 3교구(세리토스채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한가족

이번 달에는 이현옥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세리토스 채플의 3교구를 방문했다.

교구장이신 이인범 장로님께서서는 지난 6월부터 3교구를 섬기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인범 장로님께서서는 주안예교회의 평신도 사역의 방향에 무엇보다 공감되어셨기에 교구를 맡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한다.

특별히 3교구에는 임훈 선교사님, 임화연 권사님이 계시는데, 두 분은 샌디에고에 사시면서 전도의 사역을 성실히 하고 계시다. 한 달에 한 번 지역 주민들을 저녁 식사에 초청을 하여 주안예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오신 분들에게 전하며 전도를 하신다. 그 뜻을 바탕으로 이인범 장로님께서서는 구역 식구들과 내년에는 가까운 로렌 하이츠나 다이아몬드라 쪽에 사시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이인범 장로님은 교회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힘쓰며 애쓰는 3교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시며 감사하다고 전하신다. 특히, 채플 뒷정리를 할 때면 권사님들이 무거운 의자를 정리하시고 식탁을 치우시는 것을 볼 때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짠하다고 한다.

이인범 장로님 부부가 섬기시는 3교구에는 1구역 구역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영갑, 김애경 집사님이 계시고, 구역 식구로 박은래 장로님, 박상숙 권사님, 송다니엘 집사님, 송단아 권사님, 송태일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고영옥 집사님, 문기종 집사님이 함께 하신다. 특별히 송다니엘 집사님께서서는 새로 이전하는 플러튼 성전을 위해 여러모로 힘써주고 계시다.

2구역 구역장으로는 오춘수, 오남희 집사님이시며, 구역 식구들은 임신자, 김용기, 김영애, 박성희, 이란희, 이민웅, 이한나, 이순배 집사님 등이 있다. 2구역의 가장 큰 기도제목은 얼마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김용기, 영애 집사님 부부의 빠른 건강 회복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김용기, 영애 집사님 부부는 ‘올 추수 감사절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보내왔다.

구역 식구들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같지 않은 것은 바로 이렇게 좋은 일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함께 하는 것임을 3교구 식구들의 나눔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이하나 기자 |

■ 치유간증

"너는 아직도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

요즘 들어 새삼스레 "LA의 가을 하늘이 이토록 아름다웠었나" 라고 생각해보니, 언제부터인지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요즘에 와서야 거리의 가로수도 정원에 피어 있는 예쁜 꽃들도 그리고 한 폭의 그림 같은 푸르른 가을 하늘의 높음도 느끼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라고 감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한해를 돌아보니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저 같은 죄인에게 임하셨다고 생각하니 아주 작은 마음이지만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12월 저는 몹시 아팠습니다. 감기이려니 하고 감기약만 먹고 집에서 일주일만 보냈습니다. 12월 31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만 못 먹었으니 이미 탈진 상태였고, 링거를 맞고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결과는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입원을 하였고 투석을 하기 위해 팔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23개월이 지난 후에 혈관이 깊이 위치해 있다고 수술한 팔에 다시 수술을 하고, 갑자기 칼륨이 높아져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응급실을 드나들며 그렇게 병원 다니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고, 저는 그때 이미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었고 살고 싶은 욕망도 의욕도 잃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2013년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저하고 혈액형이 같으니 검사해보고 잘 맞으면 이식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갑자기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너무

나 잘 맞다고 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검사로 모두가 지쳐가고 있을 때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 해주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한 순간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당신의 뜻인가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저의 소식을 듣고 아는 지인이 연락을 해 왔습니다. 학창시절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고향 후배였습니다. 선뜻 신장을 기증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고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2014년 4월 한국에 갔습니다. 제 몸은 너무나 힘이 들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한 가닥 희망을 안고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도착해보니 그 후배는 가족의 반대로 못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실망과 절망으로 울어야만 했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몸과 마음이 지진채로 저는 LA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몸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오자마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혈이 심해서 일어서다 쓰러졌고 화장실을 가기도 힘들어 기어서 가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하다 주님 부르시면 가리라" 생각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밤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해서 12시간 자다가 새벽기도를 나갈 때도 많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파도 이를 악물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1년에 한번 읽기도 힘들었던 성경읽기를 투석하는 1년 동안 4번을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바쁘게 살았고 힘들고 고달팠던 세상일 다 접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께만 올인하기

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렸을 때 막내 아들이 저에게 신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메이도록 고마웠지만 안쓰럽고 아팠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저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대학원에 갈려고 준비 중이었던 아들은 모든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UCLA 병원에 연락을 하고 검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두 개가 거부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들 것을 이식해도 되는데 더 잘 맞는 사람 것 받으면 제가 더 오래 산다고 다른 사람 것하고 바꾸어서 할 수 있겠냐고 아들에게 의사를 물어왔을 때, 아들은 엄마가 더 오래 산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저에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아들 신장은 또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주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힘든 모든 검사를 마쳤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좋아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모든 수술이 잘 끝났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아들은 일도 하며 정상으로 생활하고 있고, 저도 건강을 많이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에 눈물이 쏟아졌습다. 이 기적 같은 일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셨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계획하셨던 분도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두 번의 실망을 겪게 하시며 나란 존재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리라 계획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김재희 집사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키 아이디어

성탄절이 멀지 않았다. 토피(Toffee)는 이 중요한 계절에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간식이나 후식 아니면 서로 주고 받는 선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박창신 기자



크리스마스 캔디 토피(Toffee)

- 1. 재료** 1) 생 알몬드 1컵 (1 cup raw almond) 2) 설탕 1컵 (1cup sugar) 3) 버터 1컵 (1 cup butter - 8 ounce/ 2 sticks) 4) 소금 1/2 작은 술 (1/2 tea spoon salt) 5) 초콜릿 부순 것 1 1/2컵 (1 1/2 cup semi sweet chocolate chips) 6) 바닐라 엑기스 1/2 작은 술 (1/2 tea spoon Vanilla Extract) 7) 피칸이나 호도 부순 것 1/3컵 (1/3 cup pecan chopped)

- 2. 만드는 법** 1) 오븐을 350 도로 예열한다. 2) 생 알몬드를 쿠키 굽는 팬 (baking pan)에 골고루 깔고 예열된 오븐에 10 분 동안 구어 놓는다. 3) 중간 크기의 냄비에 버터, 설탕, 바닐라, 소금을 넣고 중간 불에서 계속 저으며 버터가

녹고 내용물이 끓어 진한 송진(amber) 이나 알몬드 브라운 색이 될때까지 (약 10-12분) 젓는다 (카라멜이 된다). 4) (3) 의 뜨거운 카라멜을 (2) 의 구어 놓은 알몬드 위에 부은 후 5) 초콜릿 조각을 뿌리고, 1-2 분 지난후 카라멜이 말랑 말랑해지면 초콜릿 조각들을 골고루 카라멜 위에 편 다음 피칸이나 호도 부순 것들을 뿌리고 살짝 눌러 초콜릿에 붙게 한다. 6) (5)을 2시간동안 완전히 식힌 후 원하는 크기의 조각으로 잘라 밀폐된 용기에 담아 놓았다가 소그룹의 후식이나 간식 또는 예쁜 상자에 담아 선물용으로 쓴다.



■ 삶 터에서

딸 키워 시집 보내는 심정으로...

<Flower Factory/Uptown Nursery
- 나형철 장로, 나윤자 권사>

LA 코리아타운 올림픽길과 놀만디길 근처에 위치한 Flower Factory는 90년 전부터 있던 꽃집, 식물원으로 올림픽 길을 사이에 두고 김스 전기와 마주보고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찾기가 쉬워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980~90년대 미국 오신 분들 중에 새로 집 사시고 엮타운 너서리에서 과일나무 한 두 그루 째는 대부분 사다 심으셨다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 지난 5년 전부터는 각종 채소 모종을 다량 공급하여 봄철에는 많은 분들이 손쉽게 튼튼한 모종을 구입해 가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결혼한 후 허전하던 때 시작하여 10여년간 운영 중인데 꽃을 꽃고 나무들을 키우고 관리할 때 아들 딸 키울 때의 정성으로 가꾸었습니다. 꽃과 나무들 사에서 일을 하다보니 약해졌던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감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꽃집이 기쁘거나 슬플 때 찾는 곳인바 결혼식이나 생일, 개업 등 축하해 주고 사랑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찾아오실 때 함께 기뻐지고 축하해 주게 되어 답으로 기쁨을 얻게 되고 장례꽃이나 슬픔을 당한 분들이 오실 때는 함께 슬퍼하는 맘으로 위로도 하고 격려할 때 보람도 갖게 됩니다.

결혼 꽃을 해드린 손님 중 얘기를 넣고 첫돌에



첫돌잔치 꽃을 주문하러 왔을 땐 친손주를 본 것 같이 기쁘고 또 우리 너서리에서 사다 심은 과일나무나 토마토, 풋고추 등에서 열매가 많이 열렸다고 먹어보라고 가져오신 분들을 보면 너무 고맙고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정성드려 키운 식물, 생명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친절하고 마치 딸을 키워 시집보내는 심정으로 잘 키워주길, 사랑받길 바라는 것이다 보니 관리하는 법, 물 주는 일, 거름 주는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게 되고 손님과 정을 주고 받게 됩니다.

꽃이나 나무들은 동물과 달리 어떤 행동이나 감정표현은 못하지만 분명 생명체로서 감각을 느끼고 사람이 가꾼 정성만큼 정직하게 결과를 보여 줍니다. 물을 안주었을 때는 잎, 줄기를 축 늘어뜨려 물을 달라하고 거름이 부족하면 잎을 노랗게 변화시켜 거름 줄 때를 알려주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음악을 들려주고 키운 작물이 똑같은 환경 조건하에서 키웠으나 음악을 못듣고 재배된 작물보다 40%정도의 수확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너무 많이 알게되고 그 오묘하심에 감동될 때가 많고 이런 것을 깨닫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비즈니스를 운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주셔서 우리 주안예교회를 알리고 전도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삽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꽃을 꽃기도 하고 4-5시간 계속 운전하여 나무들을 사러가고 또 배달하는 등 육신적으로는 힘든 때도 많지만 식물 속에서 일하다보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적당한 햇볕을 쬐어 건강주시어 연령에 비해 아직도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일하며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가게를 닫는 주일에는 사랑하는 교구원들, 교육국 식구들과 교인들과 기쁜 맘으로 교체하게 하시어 행복을 더욱 주시고 최혁 목사님의 전하시는 영의 양식으로 더욱 살찌가는 교회생활이 있어 감사합니다.

<주소: 2941 W.Olympic Blvd., LA, CA 90006>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3700 Wilshire Blvd. #265 LA CA
Cell : 818.648.1224

Kim Sun Young

원 장

Helen Kim

Bus. Hours:
Mon. ~ Sat.
9:00 AM ~ 7:00PM
전화예약 바랍니다.

김 선 영 미 용 실

▶ 6772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Tel (714)228-9001
Cell (562)315-3090

UCOME AUTO SALES

새 차 • 중고차 • 매매 • 리스 • 좋은 보험 소개

자동차를 싸게 사실 수 있는
One Stop Shopping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박선우 / Paul Park
Cell: (213) 880-1267
p1267w@hanmail.net

AYCE GOGI

KOREAN BBQ

대표: David Chun
7128 Van Nuys Blvd
Van Nuys, CA 91405
818-465-3050

■ 미서부 5대 캐년을 찾아서 #2 Navajo Nation

인디안들의 아픔 서린 성지, 붉은빛 그 장엄함...

오늘 발걸음을 옮겨야 할 곳은 미서부에서 가슴 아픈 추억을 지닌 땅, 인디언의 후손들이 살면서 역사의 한 그루터기를 만들어 놓았던 곳, Navajo Nation ‘모뉴먼트 밸리’와 ‘엔텔롭 캐년’ 이다. 그랜드캐년에서 4시간 쯤 동쪽으로 이동하면 89 Fwy 거치고 160 Fwy 경유 드디어 Navajo Nation 에 접어들게 되고 Kayenta 라는 작은 도시가 나온다. 이곳을 기점으로 Monument Valley 가 시작된다.

Navajo Nation 전체는 붉은 사암층으로 형성된 곳이다. 그래서 천지가 붉은 빛이다. 이 붉은 사암층 바위들이 햇빛을 안고 연출하는 일몰과 일출의 장관을 경험하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 1억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층의 역사가 해저로의 침식과 지상 약 3마일까지 올라가는 용기의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모뉴먼트는 평원의 지층대를 유지하다가 바람과 비등 온갖 세월의 세파로 깎여가며 오늘날의 경이로운 대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나바호 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면 Mitten-Butte 등 붉은 사암층의 바위들은 높이가 어떤 곳은 1000 피트에 이를 정도로 높은 곳도 있다. 현재도 인디언 안내원의 인도에 따라 17-50마일에 해당하는 밸리 구석구석을 짚을 타고 방문할 수 있다.

깎이고 부수지고 세월의 흔적을 감추며 드러난 모습들은 가히 신비롭다. 토켄 풀이라 이름 지어진 곳은 주변의 바위들이 깎여 나가면서 가느다란 기둥형태로 남아 있는데 깎이고 깎인

후에 어찌저 모양으로 남았을꼬, 세월의 흐름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다.

마치 손바닥을 펼쳐 보인듯한 바윗덩이는 누구를 손짓하는 것일까? 그래서인지 손가락 사이



로 세차게 불어다치는 바람이 우리의 뺨도 예이듯 스쳐 지나간다. North Window 지역에서면 밸리 평원지역에 우뚝 우뚝 서있는 바윗덩이들을 모두 한번에 쳐다 볼 수 있는 것이 압권이다. 누구나 할 것없이 멀찌감치 평원에서 서 있는 바윗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 놓고 인증샷을 올리고 파란 하늘에 홀로 남아 있는 바위기둥을 감상하기도 한다.

해가 질무렵 황혼의 밸리는 환상의 무대로 우리를 초대한다. 붉다 못해 황금 빛으로 각색을 한 후 대지에 펼쳐지는 밸리의 한편의 무대는 그 누구도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어디 그것 뿐이겠는가? 어디서부터 밀려 왔는지 금새 가느다란 줄무늬를 이루며 다가오는 실구름이 석양 노을을 반색하며 붉은 띠를 하늘에 드리우는 것을 어찌 가슴에 담지 않겠는가. 석양의 애타는 모습을 가슴에 담고 아침을 기다리면 밸리는 우리에게 힘찬 메아리를 울려대며 신명나게 반기며 달려온다. 밸리의 바윗기둥 사이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굵은 햇살을 담아내기가 벅하다. 솟구치는 에너지를 담아낼 곳이 없다. 온 천지가 붉은 태양과 함께 힘차게 솟아 오른다.

이렇게 두 나절을 밸리에서 보내고 또다른 Navajo Nation 지역인 엔텔롭캐년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모뉴먼트 밸리에서 출발하여 약 2시간 가량 북상하면 아리조나주의 최 북서쪽 끝단 지역에 페이지라는 작은 도시가 나오는데 이곳에 캐년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또한 미국에서 9번째로 큰 파웰호수가 자리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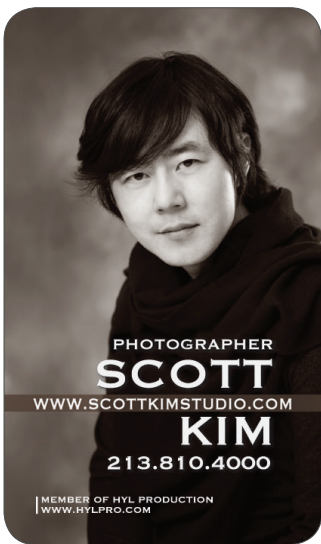
어서 관광지역으로는 제법 유명세를 타는 곳이기도 하다. 파웰호수에는 글랜캐년 댐이 있는데 이 댐은 답수호로서 전기발전을 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곳 엔텔롭캐년의 협곡을 막고 물을 담아 주변 소도시나 인디언 마을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주로한다.

엔텔롭캐년 깊숙히 짚을 타고 들어가면 커다란 큰 바위 지층이 두갈래로 갈라져 협곡의 커다란 벽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벽에 비춰지는 햇살의 모양은 그야 말로 빛의 향연 그 자체이다. 역시 사암층으로 형성된 바위의 갈라진 벽이 엄청난 빛물의 흐름으로 벽면이 깎여 ‘Wave’ 를 형성하여 그 웨이브 굴곡면 한줄기 한줄기 선상으로 빛이 걸리고 반사시키고 황금빛 도자기를 빚어내듯 영롱한 자태를 비추이면 우리는 발걸음을 멈출수 밖에 없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이번에 태고의 역사를 자랑하며 거센 물줄기 흐름을 보여주는 일명 ‘말발굽 캐년’이라는 곳으로 하이킹을 한다.

같은 형태의 지층으로서 조금 더 큰 지각 변동에 의한 균열사이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커다란 힘을 가진 물줄기가 갈라진 틈바구니를 벌리고 구비구비 돌아 누구도 만들어 낼 수 없는 모양의 물줄기 모양을 만들었는데 마치 말이 신고 있는 굽의 모양을 닮은듯 만들어져 말발굽 캐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교/우/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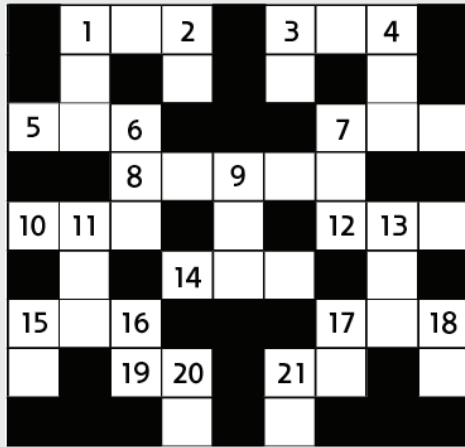


윤성문 집사

주안에 성경퍼즐

<가로 문제>

1. 계시록에서 '아마겟돈'이란 상징적 용어로 표현된 이스라엘 골짜기(사 5:19)
3.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이름(출 3:14)
5. 헛사람 우리야의 아내로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된 솔로몬의 어머니(삼하 11:3)
7. 요셉을 종으로 샀던 애굽의 시위대장(창 37:36)
8. 계시록의 7교회 중 하나로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받은 교회(계 3:14)
10.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중 한 명(눅 24:18)
12. 학개와 함께 성전재건을 독려한 선지자(스 1:11)
14. 에베소의 수호신, 생산, 양육의 여신(행 19:23-41)
15.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는 한 성읍으로 민족적 기도와 경배의 장소(삼상 7:5)
17. 롯의 시어머니
19. 계시록의 7교회 중 하나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책망받은 교회
21. 대제사장이 흉패 밑에 입을 앞치마 같은 의복(출 28:15)



2.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마 3:10)
3. 교활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포도원을 망침(마 2:15)
4. 폐위된 아하수어로 왕의 왕비, 그 뒤를 이어 에스더가 왕비가 됨(에 1:19)
6. 예수님 대신 풀려난 강도(마 27:16)
7. 롯의 남편으로 다윗의 조상이 된 베들레헴 지주(롯 2:1)

9. 믿음 안에서 바울의 아들로 불려진 청년 동역자
11. 디모데의 외할머니(딤후 1:5)
13. 요한삼서의 수신자(요삼 1:1)
15.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됨이니(약 1:14)
16. 메대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스 1:1)
17. 아합이 포도원을 탐내어 죽인 인물(왕상 21:1-)
18. 미워하는 마음
20. 바울의 동역자였으나 결국 그를 떠나간 사람(딤후 4:10)
21. 이스라엘의 왼손잡이 사사(삿 3:15)

<출처: <http://blog.daum.net/limbible/>>

<세로 문제>

1.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큰 아들(창 41:51)
2. 이미 ()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 정답을 오려서 이름을 적어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분께 제출해주세요. 다 맞추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 믿음의 글

평온의 기도 The Serenity Prayer

by Reinhold Niebuhr (1892-1971)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순응하는 마음에 평온을,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그리고 이 두가지를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Living one day at a time;
하루 하루를 꾸준히 살게 하시고
Enjoying one moment at a time;
순간 순간을 즐기게 하소서
Accepting hardships as the pathway to peace;
고난은 평화로 가는 통로임을 받아들이고
Taking, as He did, this sinful world
as it is, not as I would have it;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죄 많은 세상을 내 맘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Trusting that He will make all things right
if I surrender to His Will;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섭리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That I may be reasonably happy in this life
and supremely happy with Him Forever in the next.

그래서 이 생애에서는 분수에 맞는 행복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그 분과 함께 최상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9:30, 11:30
밸리채플 / 오전 8:00, 9: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